

## 열세번째 메일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은 변함 없이 한결같다. ‘가인과 아벨’ 도 ‘이삭과 이스마엘’ 에게도 그리고 ‘야곱과 에서’ 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속성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와 중오를 갖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음’ 때문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속성을 바꾸려는 교만함때문에서 발생한 것이다.

‘에서와 야곱’이 ‘이삭과 이스마엘’과 다른 것은 태중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이다.(창 25:22)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 하여튼 ‘에서’는 태중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뱃속에서 당당히 먼저 나왔지만 야곱은 패배로인해 스스로 나올 자신이 없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에서’는 태중에서부터 싸워 승리한 자신감으로 태어난 후에 사내답고 용맹스럽게 사냥하며 살았다. 그러나 야곱은 태중에서의 싸움에서 실패한 후로 늘 자신감이 없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종종 꿈수도 부렸다. 사람들은 이런 ‘에서와 야곱’의 독특한 관계에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를 궁금해 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 1: 2-3, 롬 9:13)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정말 미워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참되고 선하신분으로 어느 누구를 절대로 미워 하실수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시고 진실하지 못하신 분이 된다. 단지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이해할수 없는 아주 독특한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해 될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과

연 하나님이 실수가 있겠는가? 우리 인간은 천번을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 할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란 뜻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사랑 하실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이 뜻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으로인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 할수 있도록 했다’ 는 뜻이된다. 그것은 절대로 외형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롬 2:11,요 7:24) 그사람 안에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순서로 따지면 먼저 나온 장자인 ‘에서’가 외형적으로 이미 모든 것을 갖게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장자인 ‘에서’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더 받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 내는 이것만큼은 ‘외형적인 것’ 을 뛰어넘는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과연 ‘에서’가 갖지 못하고 ‘야곱’이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당신이 ‘야곱’이 태중에서의 싸움에서 져서 뒤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형 보다 먼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에서’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 한다면 당신의 하나님에대한 생각은 항상 한정적일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의 기준에는 세상적인 기준이 반드시 배어있다.

엄연히 말해서 ‘에서’ 는 세상이다. 에서는 태중에서부터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들을 바꾼다!

그리고 그 바꾸어 놓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에서의 실패는 태중에서부터 야곱과 싸워 이긴 것이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생각했는지 누가 알겠는가? ‘에서’가 인간의 힘으로 ‘야곱’을 태중에서 싸워 이겨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놓고 먼저 나온 것이라면 당신은 인정 하겠는가? ‘첫째’, ‘둘째’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당신과 내가 혹시 세상에서 싸워 인간의 능력으로 패배했다 할지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 없이 한결같다.

사도요한은 이런 ‘에서’의 상태를 영적으로 아주 잘 표현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권면 하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안에 있지 않다’ 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호소한다. (요한 일서 2:15-16) 그리고 이런 상태는 하나님 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밝힌다.

이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미움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자신의 힘으로인해서 자신이 사랑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혹시 ‘에서’ 처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꾸어 당당히 해낸 자신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홀히 여기며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는 않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에는 비록 패배를 경험했지만 당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잃지 않으

려 소중히 여기며 사는가? 당신과 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사랑스러워 사랑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기에 ‘야곱’ 처럼 사랑 받는것이다. 아멘!